

구역예배 및 가정예배(2020년 12월 첫 번째 주일)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24절-**

\* 마음문 열기(Welcome)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는 어디인지 의견을 나눠봅시다.

\* 찬양하고 경배하기(Worship)

천사들의 노래가(찬125)

\* 말씀 나눔(Word)

1. 이번 주일 설교와 누가복음 15장 11-24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뭔가 요구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보고, 그 숨은 뜻이 무엇인지 설교 말씀을 통해 확인해봅시다.

3.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17절), "일어나"(18절), "아버지께 가서"(18절) 선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나타난 아들의 예행연습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정리해봅시다. (부름, 죄의 고백, 회개, 간청)

4.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과정은 인생의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관심을 두는 시대에, 내 영혼이 주님의 집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2절과 24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조건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에 머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붙들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 좋은 소식 알리기(Witness)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함시다.

\* 함께 기도하기(Work of Prayer)

1.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께 강건함을, 담임목사님께 사도 바울과 여호수아의 영성을 주소서.
3. 가정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4.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소서.
5. 민족의 평화통일, 외교와 국방 안정, 경제 회복을 허락하소서.
6.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옵소서.